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인언민 마르티노

(1737-1800)



1737년 충청도 덕산 주래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인언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사영 알렉시오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운 뒤, 한양으로 올라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장남을 주문모 신부 곁에 남겨 두고, 얼마 뒤에는 차남을 유명한 교우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하였다.

1797년 정사박해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인언민은 공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청주로 이송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다시 그의 고향을 담당하는 해미 관장에게 보내졌다. 해미 감옥에서 젊은 이보현 프란치스코를 만났는데, 이들은 서로 권면하면서 갖은 형벌과 문초와 유혹을 이겨냈다. 그러자 관장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언민도 이보현과 같이 때려죽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0년 1월 9일, 그의 나이 63세였다. 마지막 매질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되뇌었다고 한다. “그렇구 말구.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시편 8,4-5.6-7.8-9(◎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요한 16,12-15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



오늘날 헤브론 시내 전경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창세 18장에 먼저 암시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의 참나무 아래 천막을 치고 살 때 길손 셋이 방문해온 일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광야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지명의 뜻은 ‘연합하다’ ‘묶다’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의 정착촌 넷이 연합했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헤브론의 옛 이름을 “키르얏 아르바”(창세 23,2; 여호 14,15)로 소개하는데, 이는 ‘넷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화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세 길손이 참나무 아래 천막을 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상수리나무인 참나무는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도토리를 제공해준 나무라 ‘진짜 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론]인데, 이름에 하느님을 뜻하는 ‘엘’이 들어 있어 고대에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판관 9,37의 “점쟁이 참나무” 참조).

다른 하나는 길손들이 방문해온 때가 “한창 더운 대낮”(1절)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길손은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반가운 존재였지만, 더운 날의 오후 시간은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낮잠을 자던 때입니다. 이런 시간에 방문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범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귀찮은 기색 없이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4절). 광야를 오래 걷다 보면 발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

에, 발을 씻고 피로를 풀도록 물을 제공하는 건 큰 환대였습니다(창세 24,32; 루카 7,44). 또한 아브라함은 빵을 좀 가져오겠다며 안으로 들어가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 나옵니다. 세 손님이 어디서 온 누군지는 모르지만, 먼 길 오느라 시장했을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이런 환대에 보답하듯 세 길손은 사라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의 정체를 알아챈 것도 이때입니다. 늙은 나이에 수태고지를 접한 사라가 숨어서 웃는 걸 길손이 꾸짖자(창세 18,12-13) 그들이 천사들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를 암시하듯 2절에는 길손이 “세 사람”으로 나오지만, 13절에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손님 가운데 둘은 이후 소돔으로 갑니다(창세 19,1). 소돔의 악행 때문에 원성이 하늘까지 닿자, 주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 확인해 보겠다.’(18,20-21) 하신 데에 따른 행보일 것입니다. 다만 손님 하나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는 18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하느님인 듯합니다. 말하자면, 세 천사 가운데 둘은 소돔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분이신 성부께서 아브라함과 협상하시며 그곳에 의인이 열 명만 있어도 그들을 보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소돔은 결국 그 열 명이 없어 망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길손에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신비를 미리 알아보게 해준 소중한 성지입니다. 🍷



교회는 가시적이고 영적이다 (2)

- 「교회헌장」 8항 후반부 -

「교회헌장」 8항의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언급을 통해서, 교회 일치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되는 이 성화와 진리의 요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항의 후반부는 가시적 구조로서의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 곧 구원 역사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은 교회가 취해야 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와 ‘유비’를 통해 표현하는데, 이는 교회의 성사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원성사라고 한다면, 교회는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근본성사가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듯이, 교회도 현세의 영광보다는 비움과 버림을 통해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에게서 파견되었듯이, 교회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아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여 죄를 모르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 오셨듯이,

교회도 거룩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안고 있어 정화되어야 함을 알고 참회와 쇄신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표현 형식에 있어서 네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교회는 죄인을 안고 있기에 죄가 있는 공동체인 점에서 앞의 세 가지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는 분이시고 교회는 정화되어야 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황 프란치스코.

다음 단락은 「교회헌장」 1장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교회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전하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그넷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교회는 세상의 고통을 인내와 사랑으로 이겨내어, 마지막 때에 드러날 주님의 신비를 어렴풋이나마 세상에 보여줍니다. 종말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교회는 인간 상호 간에 그리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이루는 일치의 성사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배우는 건강한 삼각형 관계

어느 수녀님이 호미질을 하며 “하느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자, 하느님께서 “나도 호미질을 한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디종의 가르멜 수녀였던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자기 영혼 안에 거처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발견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승에서부터 천상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전해줍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니까요. 복되신 삼위일체는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거처, 우리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길로 해서 심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밭에서 호미질하다 하느님을 가깝게 체험한 수녀님의 신앙이 참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합니다. 저는 자신의 많은 결핍을 내면이 아닌 밖에서 충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불부터 끄려고 한 꼴이었지요. 일단, 해결되지 않은 제 안의 상처와 마주하기가 싫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매듭을 풀고 이웃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 아빠와 엄마 사이의 삼각형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찌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엄마를 힘들게 하면, 큰 딸인 저는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 간섭하였습니다. 엄마와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아빠는 미덥지 못하여 마구 개입했습니다. 제 두 딸 역시 엄마, 아빠 사이에서 건강한 관계를 배우

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신을 잇는 삼각형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서로 불신하고 통제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있을 자리에 있도록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는 경험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게 된 시기는 상처로 얼룩진 제 영혼의 집, 내면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외면한 제 슬픈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제 영혼에도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끝없이 내어주시며 각자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성부께서 성령께 역할을 주실 때, 성자께서는 잘난 체하며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성자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부께서는 ‘애들이 과연 제대로 할까?’ 하는 의구심으로 참견하지 않으십니다. “어련히 알아서들 잘하려고!” 전폭적으로 믿으며 신뢰해 주십니다.

제 안에 거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교환하는지 묵상하다 보면, 찌그러져 버린 우리의 삼각형 관계가 비추어집니다. 서로를 믿어주면서 ‘어련히 알아서들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심연에서 만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 그 빛나는 삼각형 보석을 캐내기 위해선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영혼의 잠수복을 입고 말이지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시는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린 하나가 될 겁니다”(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 ☪



교구 소식

의정부교구청 홍보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디자인 및 일반사무 [계약직]

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25(월) ~ 2027년 1/8(목)

접수 7/4(금)까지, 이메일 jubo@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 제147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창세 2,18)

일시 6/20(금) 19시 ~ 22(주일) 17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주말분과 대표

청년센터 프로그램 - 청년 피정 바오로말 Hope Stay

한 달에 한 번,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6/27(금), 7/11(금) 20시~21:30 /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7/4(금) 20시~21:30 /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대상 만 15세~45세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신청 ▶



청년 전례 아카데미 2 - 르네상스와 성 베드로 성당_B차

일시 6/21(토) 15:30~17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년 및 교리교사 (선착순 30명)

회비 1인 2만원

강사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 및 건축신학연구소 소장)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축성의 서예가, 심성필성 작품 총서 출판기념전 - 1차

작가 정성훈 파비아노 신부

장소 갤러리1898 (명동 성당 지하 1층)

기간 6/20(금)~29(주일) [개막식 6/20(금) 14시]

한마음 사계 피정 - 7월 (대침묵 피정)

일시 7/4(금) 16시 ~ 6(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사랑을 만나다, 사랑을 살아가다

지도 김성우 이사악 신부 (청주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6/2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초자연적 은총의 근원이신 예수 성심

강사: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

문의: 010-2127-003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아름답게나이들기피정: 7/4(금)~6(주일) [2박3일]

예수마음기도: 7/10(목)~12(토) [2박3일]

영신수련피정: 7/23(수)~27(주일) [4박5일]

여름청년침묵피정: 7/18(금)~20(주일) [2박3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주말 성령목상회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일시: 6/21~7/26, 매주(토) 13시~16:30 [6주간]

장소: 성령쇄신봉사회 가능동 교육관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90)

회비: 2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10-9697-9004

현대인의 전례와 영성

1차: 7/16(수) 15시 ~ 17일(목) 13시

2차: 8/6(수) 15시 ~ 7일(목) 13시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수도원)

강사: 최 빠꼬미오 신부

회비: 12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성체성혈 대축일 대피정

일시: 6/23(월) 13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 회비: 3천원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임승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추기경님 외 사제단

주최: 서울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문의: 02-773-3030

3.4지구 성령기도회 영성 피정

일시: 6/20(금) 13시~16:30 / 강의, 미사, 안수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문의: 010-3790-0496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교구성지순례(추자도포함):

7/1(화)~4(금), 9/7(주일)~10(수)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6/20(금)~23(월), 7/18(금)~21(월),

7/25(금)~2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 출장 피정)

수도 전통에 따른 텍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7/31(목)~8/3(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수도원)

비용: 38만원 (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8599-3127 한 릿다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6/26(목)~29(주일), 7/17(목)~20(주일)

성경완독: 7/25(금)~8/2(토), 8/15(금)~23(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010-9715-1203 카타리나의 집 (개인 자체 취사)



교육 · 모집 ▶▶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고양 아람누리)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일시: 6/17, 24(화) 12:30~16:30

장소: 가톨릭회관 1층 강당

강사: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졸업미사: 구요비 총대리 주교

회비: 월 3만원 (당일접수 가능)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2025년 하반기 영성학교: 7,9~10월, 시간·장소 동일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 / 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접수: 6/20(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내용: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 있는 분

대상: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60세 이하 신자

접수: 6/30(월)까지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첫째(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 (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21(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6/22(주일) 14시~17시	서울 길음동 본원	010-4882-9674
	예수수도회	수시 (전화상담 후)	서울, 대전 (수도원)	010-7485-1964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후기 2차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 (석사과정)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6/16(월)~7/6(주일)
 면접: 7/18(금)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서울 반포)
 문의: 02-3147-8787, gcs.catholic.ac.kr

생활 속의 이나시오 기도 모임 제23기 모집

이나시오 영신수련 10개월 과정. 오감활용으로
 복음을 기도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남
 6/23(월) 10시: 오전 첫 모임
 6/25(수) 20시: 저녁 첫 모임
 장소: 중산 성당 202호
 문의: 010-5570-6337

세인트에프렘양상불 단원 모집

대상: 성음악에 관심있는 55세 미만 신자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연습: 매주(화) 20시, 원당 성당
 문의: 010-5446-7383

별내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전공자, 성가대 경력자 우대
 서류: 자원봉사 신청서, 교적 증명서, 이력서
 접수: 이메일 petersmc@naver.com,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9089-2271 단장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캠프 모집

여름캠프 초3~중2, 미국·아일랜드 학교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오회 해외학교법인

젊은이 기도모임 마음쓰다

일시: 6/17~11/11, 1,3주(화) [10회]
 장소: 서울 성북구 본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회비: 2만5천원
 문의: 010-4882-9674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 (가드, 간호사)
 접수: 6/28(금)까지
 이메일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안내 · 기타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금)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날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9(토) 희년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9/8(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0(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10/17(금) 일본 나가사키 (4일)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이탈리아 (11일, 525만원, 아시아나직항)
 11/2(주일), 11/9(주일) 희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12(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을 찾아서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연길, 옹정, 도문
 (5일, 15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9/21(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500차 토요일기도회〉

일시: 6/21(토) 15시 기도회, 16시 주일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미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와 사제단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전시

행복 그리고 동행展 - 여섯 번째 이야기

오선영 닥종이 인형 연구회 회원 작품전

일시: 6/21(토)~7/4(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평화 예식 (Ritus Pacis)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면, 평화 예식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마태 5-7장)에서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이런 가르침에 따라, 이웃과 화해하는 평화 예식은 이미 2세기부터 미사에 있었습니다. 155년경에 기록된 유스티노의 「호교론」에서는 말씀 전례를 마치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예물을 봉헌한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동방 전례에서는 이 순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그레고리오 교황(590~604년 재위)은 평화 예식을 ‘감사기도’ 다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례는 평화 예식을 다음에 이어질 ‘빵 나눔 예식’과 분리하여 이웃과의 화해를 통한 영성체 준비라는 의미를 더욱 선명히 하였습니다.

먼저, 사제는 평화 기도를 바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약속하신 평화(요한 14,27 참조)와 부활 후 건네신 평화의 인사(요한 20,19,21 참조)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평화를 깨뜨린 죄에 대한 용서와 평화와 일치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사제가 인사하면,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라는 권고에 “평화를 빕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사제가 팔을 벌리는 건 기도 권고나 주례 기도 때와는 달리 신자들을 포용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베드로 1서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5,14).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방법은 민족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다른데, 한국 주교회의는 “가벼운 절이나 가볍게 안음,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할 수 있다.”(「미사 경본 총지침」 82항)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평화 예식은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인사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고 기원하는 기도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천상 예루살렘에서 누릴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신앙 공동체의 다짐이 담긴 표지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8일 이송희 마르코

■ 7월 성시간

일 시: 7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7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6월 15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김순곤(라자로), 이경예(마르타)	
06월 22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6월 사목협의회

일 시: 6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6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6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7월 봉성체

일 시: 7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남성 레지오 단원 모집

본당 남성 레지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레지오에 관심
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이은혁(마태오) 010-2284-6759

우리들의 정성 (5월 26일 - 6월 01일)

교 무 금	8건	1,280,000원
주 일 헌 금		1,180,000원

■ 감 사 헌 금

김윤숙	20,000원	이제노베파	20,000원
파주 - 고양 필리핀 공동체		100,000원	

- 복음 말씀 -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